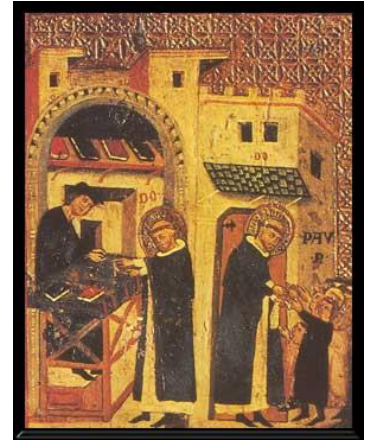


성도미니코 데 구스만

2017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었던 우리 사부 성 도미니코 축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자비는 세상에 대한 자비의 응답이 되고자 했습니다.

성 도미니코에게는 언제나 그 시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고 오늘날 그 어떤 때보다 더 필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 현실성, 자비였습니다.

기쁨은 꼭 소란스럽거나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살 수 있는 건전하고 밝은 분위기를 만드는 평온함입니다. 기쁨은 현실성과 함께 가야 합니다. 현실성은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 있는 받아들이 수 없는 것을 식별할 줄 아는 시각입니다. 자비는 희망으로 그 현실에 다가갑니다. 자비는 온정주의적 태도나 일시적인 괴로움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현실적 감각으로 그리고 연대성을 지니고 가까이 있음으로써 돕고자 하는 항구한 태도입니다.

성 도미니코의 전기를 쓴 베드로 페란도에 따르면, 성 도미니코에게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비가 드러났습니다. 수도회 설립을 생각하기 이전에도 그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와 함께 자비가 자라났고, 그래서 다른 이들의 비참함이 그 자신 안에 모여들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그것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미니코가 젊었던 시절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팔렌시아 지역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도미니코는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가 가장 아끼던 책들도 주었습니다. 그 책들에는 그가 적어놓은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지적인 측면에서도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더 극적인 장면은, 그가 더 이상 팔 것이 없었을 때 자신을 종으로 팔려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비가 없고 이기적이며 연대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비판은 오늘 우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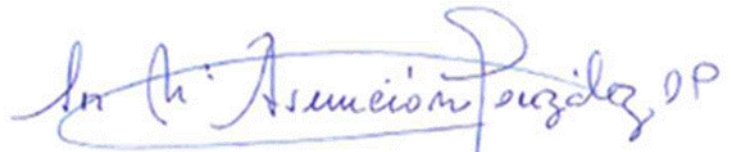
지닌 수단들로 계속해가야 할 비판입니다. 신앙은 말로 전달되지만, 삶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다가 카타리파 이단이 사람들을 가톨릭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무지를 이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자비를 발견했습니다. 도미니코와 함께 살았던 이들은, 그가 언제나 즐거웠고 그의 얼굴은 사람들의 고통에 접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기쁘고 빛이 났다고 전합니다. 도미니코의 자비는 기도가 되었고, 연대적인 기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자비는 그의 삶 전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모든 의미에서 자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고통스런 상황은, 은혜롭고 사심 없는 사랑을 갈망하는 이 세상에서 부르짖음과 번민이 줄어들도록 하기 위하여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더 인간적인 세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의를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이들은 평화, 사랑, 충만한 기쁨의 입맞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쁜 성 도미니코 축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적 포옹을 보내며,



총장 M^a Asunción González, O.P. 수녀